

역대기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결정 연구 개요

표어

구약의 열두 역사서(여호수야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길을 준비하신다는 계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어 그분의 궁극적인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신다.

에스라는 하늘에 속한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조성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에스라들, 곧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제사장 겸 교사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 냄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매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순수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바로 육체에 속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승천의 위치를 지키는 것, 원수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 기도가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전쟁의 기도를 말해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성경: 슥 1:3, 18-21, 2:1-2, 5, 8-9, 11, 6:12-13, 10:1, 3, 8, 12, 11:7, 12:1, 10, 14:5, 9

I. 구약의 열두 역사서(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길을 준비하신다는 계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어 그분의 궁극적인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신다.

- A. 우리는 구약의 열두 역사서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연결시켜야 한다. 성경은 사실상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선한 기쁨, 곧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엡 1:4-5, 9-10, 딤후 1:3-4, 6:3). 이 열두 역사서는 우리에게 경고와 빛 비춤을 주려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의해 기록되었다(고전 10:11).
- B. 우리가 주님을 다시 모셔 오는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절차로 하고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 롬 5:10, 17, 21, 살전 5:23-24, 빌 1:3-6.
- C.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불공정(사 11:4), 전쟁(계 22:2), 질병(계 47:12), 기근(사 35:1, 6), 교육(사 2:2-5, 4:2-6, 11:9, 합 2:14, 히 8:11, 시 2:6, 12), 최악된 제도(마 13:41-43), 모든 창조물의 괴로움(롬 8:21-22, 사 11:6, 9), 땅에 있는 정부들(계 11:15, 단 2:34-35, 44-45) 등과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II. 스가랴서는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초점과 주된 내용이 예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 A.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첫 번째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첫 번째 오심은 겸손하고도 친밀한 것이었다.
 - 1.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가지고 의로운 방식으로 오셨지만, 위풍당당한 말이 아닌 나귀 심지어 어린 나귀를 타신 낮아지신 왕, 겸비하신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취되었다 — 슥 9:9, 마 21:5-10.
 - 2. 그리스도는 미움받으시고, 공격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에게 배반당하시어 노예 몸값인 은 삼십에 팔리셨다(슥 11:8, 12-13, 출 21:32). 여기에 예언된 것은 복음서들에서 성취되었다(마 26:14-15, 27:3-10).
 - 3. 여호와의 동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셨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친척이셨고 또한 여호와의 동료이셨다. 목자이신 그분은 맞으셨고, 양들인 그분의 제자들은 흠여졌다 — 슥 13:6-7, 요 10:11, 마 9:36, 26:31, 요 16:32-33.

4. 이스라엘 집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오.”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이 달콤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그들의 행위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여겼다 — 슥 13:6-7, 12:10, 계 1:7, 시 22:16.
 5.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찢렸고, 그분은 죄와 불결을 씻는 열린 샘이 되셨다 — 슥 12:10, 13:1, 요 19:34, 37, 마 26:28.
- B. 스가라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말한다. 이 두 번째 오심에는 능력과 권위가 함께할 것이다.
1.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 슥 14:5, 율 3:11, 유 14.
 2. 그분의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다 — 슥 14:4, 행 1:9-12.
 3.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들을 에워싼 민족들에 맞서 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슥 14:2-3, 12-15, 12:1-9.
 4. 그때 이스라엘 온 집은 그들이 찢른 그분을 바라볼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 슥 12:10-14, 롬 11:26.
 5. 이후에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어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분께 경배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거룩하게 분별될 것이다 — 슥 9:10, 14:16-21.
 6.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이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의 이름일 것이다.” — 슥 14:9, 시 72:8, 계 11:15.

III.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으시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역사이다 — 슥 4:9, 6:12-15, 마 16:18, 요 1:1, 14, 고전 15:45하, 계 4:5, 5:6, 21:2.

- A.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안에서 능숙하게 일하심으로 세계정세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면서, 신성한 역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능숙하게 일해 넣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그분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詩),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들고 계신다 — 행 5:31, 엡 2:10.
- B.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여호와의 천사로서, 곧 삼일 하나님이신 여호와 자신으로서, 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그들을 바빌론에 포로 되어 있는 데서 신속하게 이끌어 내신다 — 슥 1:7-17, 출 3:2, 4-6, 13-15, 사 63:9, 신 33:27.
- C. 그리스도는 네 뿔을 부러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장인(匠人)이다. 네 뿔은 왕이 다스리는 네 제국, 곧 바빌론과 메도-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다. 이 네 제국은 또한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네 부분을 지닌 거대한 인간 형상으로, 요엘서 1장 4절에서는 네 단계의 메뚜기들로,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해치고 멸망시킨 네 짐승으로 상징된다 — 슥 1:18-21.

1. 네 장인은 이 제국들과 그들의 왕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숨씨들이다. 앞의 세 제국(바빌론, 메도-페르시아, 헬라) 각각을 뒤이은 제국이 숨씨 좋게 점령하였다 — 단 5장, 8:3-7.
 2. 네 번째 장인은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이신 그리스도일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복원된 로마 제국을 산산이 부수심으로, 인간 정부의 총체인 거대한 인간 형상을 산산이 부수실 것이다 — 단 2:31-35.
 3. 이 돌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용사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율 3:11.
- D.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돌로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이 부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 단 2:34-35, 율 3:11, 계 19:11-21, 비교 창 1:26.
- E. 다니엘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를 얻으신 분으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IV.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교회가 신부이자 전투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본다 — 엡 5:25-27, 6:10-20, 계 19:7-9, 11, 14.

- A.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며,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죽이는 말씀이 필요하다 — 엡 5:26, 6:17-18, 비교 딤후 3:16.
- B. 그리스도는 그분의 결혼 날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대항해 전투를 치러 온 그분의 신부, 곧 이기는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 비교 단 7:25, 6:10, 엡 6:12.
- C. 그리스도는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인간 정부의 총체를 처리하시기 전에, 결혼식을 하시어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그분 자신께 연결시켜 한 실체가 되게 하실 것이다 — 계 19:7-9.
- D.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 영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신부 곧 과정을 거치고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교회와 결혼하실 것이다 — 계 22:17상.
- E. 결혼식 후에 주님은 갓 결혼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적그리스도 곧 자기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 직접 대항해 싸우려는 자를 멸하실 것이다 — 계 19:11, 14.
1.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의 입의 숨으로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 그를 제거하실 것이다 — 계 19:11-15, 살후 2:2-8.
 2.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기 위한 것이다 — 계 19:15, 1:16, 2:12, 16.
- F. 하나님은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수신 후에 온 우주를 깨끗이 청소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 단 2:35, 44, 7:22, 27, 계 11:15.

V.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완수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 계 1:10, 4:2, 17:3, 21:10, 4:5, 5:6, 숙 3:9, 4:10.

A. 스가랴서 1장 3절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선포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데, 바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이다 — 렘 24:7, 호 6:1-3, 14:1-5, 율 2:13, 눅 15:17-24.

B. 스가랴서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말한다.

1.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결정적이고도 공히 중요한 세 가지 항목, 곧 하늘들과 땅과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2.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 숙 12:1.

3. 사람의 존재에서 다스리는 중심과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사람의 영이어야 한다. 자신의 영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 고전 2:14-15, 3:1, 14:32, 요 3:6, 엡 3:16, 뱀전 3:4, 단 6:3, 10.

4.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영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라고 명령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관하여 이 책에 계시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창 2:7, 요 4:24, 빌 4:23.

C. 우리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음의 방면들에서 누려야 한다.

1. 그리스도는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심판하고 조사하고 소유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측량하고 계신다 — 숙 2:1-2, 겔 40:3, 47:1-5, 시 139:23-24.

2.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 성벽이 되고 성안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 숙 2:5.

a. 예루살렘 성벽과 그 안의 영광이 여호와 그분 자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둘레에서 예루살렘의 보호가 되시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심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과 전부이심을 보여 준다.

b.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에서 영광이시고, 또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교회 둘레에서 타오르는 불이시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영광이 되실 것이고(계 21:23, 22:1, 5), 이 영광은 투명한 성벽을 투과해 빛남으로써(계 21:11, 18상, 24) 새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불이 될 것이다.

3.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 보내어지신 분이시자 보내시는 분이신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분께 매우 소중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신다. 누구든지 그분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 숙 2:8-9, 11, 비교 요 14:26, 15:26.

4.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오시어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양 떼를 목양하시는데, 하나는 ‘은총(은혜)’이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결합(묶는 것)’이라 불린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것이고, 묶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묶이기 위한 것이다 — 슄 11:7, 2:1-2, 5, 8-9, 11, 요 21:15-17.
 - a.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께 훨씬 더 많은 은총,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비’를 보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 슄 10:1, 12:10, 겔 34:26.
 - b. 목자이신 주님께서 방문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약한 양들은 모두 위풍당당한 말이 된다 — 슄 10:3, 비교 9:13, 16, 단 11:32하.
 - c. 우리가 아침 부흥의 시간을 갖는 동안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회파람을 부시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고 모으신다. 주님의 회파람은 날카롭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다소 새의 노랫소리와 같다 — 슄 10:8.
 - d. 주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 슄 10:12, 골 3:17.

VI. 인간 역사 안의 신성한 역사인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때 새 창조물이 있다. 새 창조물은 바로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새 본성, 새 역사, 새 완결이 있는 새사람이다.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러한 체험과 누림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모셔 올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할 것이다 — 영한 동번 찬송가 16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1장), 롬 5:10, 17-18, 21, 6:4, 겔 36:26, 고후 3:16-18, 마 5:8, 딤후 3:5, 엡 5:26-27, 6:17-18, 계 19:7, 마 24:44, 25:10.